

『리어왕』에 나타난 현명한 바보이자 치유자로서의 광대에 관한 연구

류다영*

¹중원대학교 교양학부

A Study of the Fool as a ‘Wise Fool’ and ‘Healer’ in *King Lear*

Da-Young Ryu*

¹Liberal Arts School, Jungwon University

요약 광대는 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바보 같은 행동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리어왕』에 등장하는 바보 광대 또한 특유의 익살과 해학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바보가 아니다. 그는 현명함을 지니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직관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현실을 직시한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또한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항상 리어왕의 옆을 지키며, 리어왕이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도움을 준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리어왕은 광대의 도움으로 자신의 감정이 순화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리어왕』에 등장하는 바보광대는 리어왕의 현명한 조력자이자 치유자인 것이다.

Abstract Fools usually make people laugh through their comic appearances and foolish behaviors. A fool in *King Lear* also gives us pleasure by his unique jokes and humors, however, he is not so foolish. He is very wise and has the intuition to penetrate people’s mind and understands the facts. He predicts the future, criticizes the untruthfulness and heals the wounded mind. He always keeps Lear company and makes him realize his own foolishness. After getting out of his own suffering and fear, Lear experiences his healing process of purification with the help of the fool. In this respect, the fool in *King Lear* is a wise helper and healer for King Lear.

Key Words : King Lear, wise fool, healer, Shakespeare

1. 서론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리어왕』(*King Lear*)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실수들, 믿는 이들에 대한 배신에 따른 고난 등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이것은 현대인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작품에 등장하는 광대는 특유의 익살과 해학으로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여 날카롭게 비판하는 현명한 인물의 역할을 한다. 광대는 우스꽝스러운 분장과 차림으로 우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맞지 않는 현명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인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특히 『리

어왕』에 등장하는 광대는 왕의 옆에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며 통찰력을 가지고 등장인물들의 앞으로의 행동을 예언한다. 또한 광대는 작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메신저(messenger)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관객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리어왕』에 등장하는 광대는 왕에게는 독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말들로 인해 결국 왕이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겪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리어왕』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결국은 어리석은 인물들이다. 위선적인 딸들의 본성을 파악하지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Jungwon Univ.)

Tel: +82-43-830-8651 email: modestar99@jwu.ac.kr

Received November 17, 2014 Revised December 22, 2014

Accepted January 8, 2015

못한 우둔한 리어왕은 충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첫째 딸 거너틸(Goneril)과 둘째 딸 리건(Regan)에게 왕국을 나누어 주고 막내 딸 코델리아(Cordelia)를 나라에서 쫓아내 한 푼도 주지 않고 프랑스로 결혼시켜 보낸다. 하지만 거너틸과 리건의 배신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된 리어왕은 폭풍우 속으로 쫓겨나게 된다.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후 코델리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구하려 하지만 포로로 잡히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이 소식을 들은 리어도 슬픔에 빠져 이내 죽고 만다. 이와 비슷하게 병렬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글로스터(Gloucester)와 에드먼드(Edmund), 에드가(Edgar)가 그러하다. 글로스터는 서자인 에드먼드의 계략에 속아 에드가를 쫓아내게 되지만, 결국 에드먼드에게 배신을 당하여 두 눈을 잃은 채 황야로 쫓겨나게 된다. 거지 톰(Tom)으로 변장했던 에드가가 결국 에드먼드를 죽이지만 글로스터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들 모두가 그들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대부분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등장인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게 된 최초의 계기는 결국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im[1]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선인가 악인가에 관계없이 그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자신의 삶을 고난으로 몰고 갔다면 어리석다거나 바보스럽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리어왕』의 주인공들은 모두 어리석은 인물들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극 중에서 바보로 불리어지는 광대는 우스꽝스러운 복장과 얼굴 분장, 그리고 말투로 웃음을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지만, 사실 전혀 바보스럽지 않고 다른 인물들보다 현명함을 보여준다. 또한 왕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 직설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유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왕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기도 하고 자신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치유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광대가 극에서 하는 역할, 특히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광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리어왕』에서의 광대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해보려고 하는데, 그 동안 치유자로서의 광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어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보려고 한다.

2. 본론

2.1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광대의 역할

광대란 바보광대(fool), 익살꾼(jester), 어릿광대(clown) 등을 포괄하는 말이다[2].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바보광대는 귀족들에게 고용되어 즐거움을 제공하는 존재였다. 이들은 악령을 쫓거나 흥을 돋우기 위해 왕실에 기거하였으며, 왕과 귀족들은 그러한 광대들을 후원했다. 이 광대들은 신분은 낮았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특권을 가졌고, 면책 특권을 누려 처벌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 그 당시의 광대는 대부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과 로마인들도 집안에 난쟁이를 광대로 두어 주인을 도와주고 악령을 막아내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Jeong[3]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기에는 난쟁이 같이 신체적 결함이 큰 사람을 집에 두면 액운을 막고 큰 행운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런 생득적인 바보(innate fools)를 엔터테이너로, 집안의 종복으로 집에 두었다. 그래서 이들은 신체적 기형이 심할수록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지고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 시대에는 귀족들이 이런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광대들을 집에 두었는데,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과장되고 회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이들은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극단에 속하면서 지방순회 공연을 하기도 하면서 배우들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나중에는 이런 신체적이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광대가 변모하여 귀족과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바보인 척을 하는 인위적인 바보(artificial fools)의 면모를 보여 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궁정에는 바보광대가 항상 존재했었다. Yu[4]는 광대의 뒤뜰린 신체와 부도덕한 놀이는 엘리자베스 사회의 지배구조가 억압하는 가치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성적 약자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의 비평가인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

은 『대화적 상상력』(Dialogic Imagination)에서 광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삶을 이해하지 않고 혼돈스럽게 하고 약 올리며 과장하는 것이 용인된다. 또한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을 풍자할 권리가 있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기 자신이 될 필요도 없다. 막간극 혹은 극장의 시공성에서 살 권리와 삶을 희극처럼 살 수 있는 권리와 다른 사람을 배우로 취급할 권리, 다른 이의 가면을 벗길 권리, 다른 사람에게 거의 원시적인 분노를 보일 수 있는 권리, 마지막으로 가장 개인적이고 음란한 사소한 비밀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삶을 대중에게 드러낼 권리를 갖는다[3].

광대는 극 중에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차마 할 수 없는 말들을 광대는 자유롭게 하며,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기도 한다. 또한 왕과 귀족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왕실에 속해 있는 광대가 높은 신분의 상전에게 비판의 말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극중의 광대는 작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Gwak[5]은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고나 판단을 광대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도 하였다. 또한 바보의 행세를 하고 있으나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광대가 선량한 소시민으로서 우리들의 사고와 같은 맥락으로 인식되도록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영국은 가치관의 변환기인 르네상스 시대였다.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려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세적 가치관과 르네상스 가치관이 서로 대립하게 되고, 중세의 사회구조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하여 지배계층과 인문주의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가치를 뒤엎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표현하기 위하여 광대라는 캐릭터를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Kim[6]은 셰익스피어의 광대를 크게 우둔한 바보(foolish fools)와 현명한 바보(wise fools)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래서 『헛소동』(Much Ado About Nothing)의 도그베리(Dogberry)는 우둔한 바보로 보았고, 『십이

야』(Twelfth Night)의 피스테(Feste), 『좋으실대로』(As You Like It)의 터치스톤(Touchstone), 『리어왕』(King Lear)의 바보광대(Fool), 『끝이 좋으면 다 좋다』(All's Well That Ends Well)의 라베치(Lavatch) 등은 현명한 바보라고 보았다. 우둔한 바보는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럽기 때문에 보통 희극적인 상황에서 웃음을 유발하지만 현명한 바보는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인간에게 깊이 있게 생각할 만한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 삶을 풍자하기도 한다. 현명한 바보는 공통적으로 극중 주인공들에 대한 예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허위 의식과 잔인함, 불성실함을 비판한다. 하지만 이들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광대들과는 구분이 된다.

2.2 리어왕과 바보광대

『리어왕』에서 바보 광대는 항상 리어와 동행을 하면서 리어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 노력한다. 리어의 바보광대는 리어가 겪는 시련의 과정에 모두 같이 하면서 리어 옆에서 그를 돕는다.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에서는 광대들이 각각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리어왕』에 등장하는 광대는 특별한 자신만의 이름이 없다. 단지 바보광대(Fool)라는 이름으로만 등장한다. 하지만 그는 어느 인물이 옳고 어느 인물이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누가 위선적이고 누가 정직한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다.

노령의 리어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왕국을 파괴하고 결국 비극적인 파국을 맞게 된다. 리어는 온갖 미사여구로 자신의 비위를 맞추는 첫째 딸 거너릴과 둘째 딸 리건의 말에 속아 왕국을 분할하여 넘겨준다. 그러나 코델리아는 미사여구로 치장한 두 언니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효성스런 딸이었지만 결국 다른 나라로 쫓겨나게 된다. 충신 켄트(Kent)의 충언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역시 추방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보광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보광대: 이것 보아, 내 고깔모자를 쓰는 것이 좋을 거야.

리어: 왜 그래, 이 바보야?

바보광대: 왜 그러냐고? 인기 없어진 사람의 편을 드니까 그렇지. 아니, 바람 부는 대로 웃고 덤벼지지 않으면, 곧 바깥으로 내어 쫓겨서 찬바람을 맞아요. 자, 이 고깔모자를 받아요. 아니, 이 사람은 딸

을 돌이나 쫓아내고, 셋째 딸에게는 마음에도 없는 축복을 주었다던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다니려면, 반드시 내 고깔모자를 써야 돼. 어때요, 아저씨! 그런데 고깔모자도 둘, 딸도 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어: 왜, 이놈아?

바보광대: 딸들에게 재산은 다 쥐도, 내 고깔모자만은 내가 갖고 싶으니 그렇지. 그건 내거야. 당신 딸들한테 탄 걸 달래요.

Fool: Sirrah, you were best take my coxcomb.

Lear: Why, my boy?

Fool: Why? For taking one's part that's out of favour. Nay, and thou canst not smile as the wind sits, thou'llt catch cold shortly. There, take my coxcomb; why, this fellow has banished two on's daughters and did the third a blessing against his will; if thou follow him, thou must needs wear my coxcomb. How now, nuncle? Would I had two coxcomb and two daughters.

Lear: Why, my boy?

Fool: If I gave them all my living, I'd keep my coxcombs myself. There's mine; beg another of thy daughters. (1.4. 84-92)

바보광대는 자신의 고깔모자가 리어왕에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조롱을 하며 그에게 고깔모자를 준다. 바보광대가 주인공 왕으로 하여금 현실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바보광대의 연설과 노래의 주제는 항상 리어왕의 어리석음, 즉 위선적인 리건과 거너릴을 믿고 있는 왕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가진 것을 다 보이지 말고,
마음 속 생각을 다 말하지 말라.
가진 것 이상으로 꾸어 주지 말고,
말 탈 수 있을 때 건지 말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건 것 이상으로 바라지 말라.

Have more than thou showest,
Speak less than thou knowest,
Lend less than thou owest,
Ride more than thou goest,
Learn more than thou trowest,
Set less than thou throwest. (1.4.118-23)

바보광대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리어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포기하게 된 것이 고통의 근원이 될 것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바보광대는 우스꽝스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리어왕보다 훨씬 더 현명한 존재이다. 그는 사악한 두 딸의 정체를 인식하고 있고, 딸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준 리어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고, 나아가 선한 코델리아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바보광대는 계속해서 리어가 사악한 딸들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바보광대는 “돌 능금에서는 돌 능금 맛이 나듯이, 저 딸하고 이 딸하고는 맛이 같을 거야. She will taste as like this as a crab does to a crab”(1.5.15)라고 말한다. 바보광대는 리건이 거너릴 만큼이나 잔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바보광대의 주된 역할은 리어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일이다. 리어는 4막에서 “난 운명의 장난감이 되게 태어났구나. I am even the natural fool of fortune.(4.6.182),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 우리는 바보들만 있는 이 큰 무대에 왔다고 해서 우리는 울어. When we are born, we cry that we are come to this great stage of fools.”라고 말한 적이 있다(4.6.174-75). 사실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을 믿게 되어 고통을 겪게 되는 리어에게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파괴와도 같은 목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러한 인간을 도와주고 아픔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는 자비로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델리아처럼 선한 사람들조차 무력하게 이 세상의 사악한 힘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부조리한 세상이다. 리어왕은 사악한 두 딸과 대립하며, 글로스터는 사악한 아들 에드먼드와 대립한다. 자식은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령의 두 아버지 리어와 글로스터 모두에게 과거의 영광은 이제 사라져버렸고,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삭막한 현재만이 남아 있다.

리어는 고통을 겪은 후 자신이 가엾고 힘이 없는 죄 많은 늙은이라는 걸 고백한다. 그는 폭풍우가 치는 황야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침내 리어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자신이 코델리아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어리석은 망령된 노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리어왕은

마침내 극의 마지막에 지혜를 얻게 되고 자아와 세상에 대한 깊은 인식에 이르게 된다. 리어는 자신의 정체성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동정하고 연민하기에 이른다. 왕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를 하는 시점, 즉 왕의 옆에서 그의 무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진 시점에 바보광대는 아무 말이 없이 등장하지 않게 된다.

2.3 치유자로서의 광대

Jennings[7]는 『연극치료 이야기』에서 “희곡에는 다양한 정신 상태와 정상을 벗어난 가족 관계와 갖가지 정신적 외상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병리학의 이해를 돕는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의 장면과 이야기는 일상의 것이 아니며, 인물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다. 언어 역시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희곡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공명을 얻고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사로잡아왔고 이야기 역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사랑, 증오, 질투, 가정불화, 국가의 부패를 모두 끌어안아, 꿈같은 삶과 지옥 같은 인생을 그리고 고대 신화로부터 시작 동화에 이르기까지를 한데 아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셰익스피어 희곡의 언어는 상징과 은유와 이미지의 언어로서 우리의 의식을 파고들 뿐 아니라 사고 체계에까지 강한 충격을 남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심리치료에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어떤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 다음 그 대상에게 비정상적인 매력이나 반감을 느끼는 것을 투사라고 정의한다. 투사는 내면과 그 외적인 표현 사이에 대화를 끌어낸다[8]. 거너럴의 잔인한 대우를 받은 이후, 리어는 자신은 3인칭으로 바꾸어 표현하여 자신과의 거리감을 두면서 대화를 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비통에 찬 리어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누가 여기서 나를 알아줄까? 이것은 리어가 아니다.
리어가 이렇게 걸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그의 눈은 어디 있나?
그의 정신이 약해졌거나, 그의 판단력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아! 이것이 내가 깨어 있는 현실일까? 그렇지 않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누가 나한테 말을 해 줄까?

Does any here know me? This is not Lear:
Does Lear walk thus? speak thus? Where are his eyes?
Either his notion weakens, his discernings
Are lethargies - Ha! Waking? 'This not so!
Who is it that can tell me who I am? (1.4.185-189)

“내가 누구라는 것을 누가 나한테 말을 해 줄까?”라는 리어의 질문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리어의 노력을 보여준다. 리어의 물음을 두고 바보광대는 “리어의 그림자 Lear’s shadow”(1.4.190)라고 답하고, 사악한 딸들이 리어를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아버지 an obedient father”(1.4.193)로 만들 것이라고 조롱한다. 그리하여 리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시작하고, 타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거짓 외양에 속아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닫기 시작한다. Muir[9]는 “광대의 모든 익살은 리어에게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을 상기시켜주었고 그의 주인의 심장을 도려내는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나 이러한 익살은 리어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오히려 그를 광기로 내모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을 리어가 바보광대로 인하여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게 되면서 고통을 받게 되지만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속으로 치유(healing)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Jennings[7]는 “일상의 현실과 극적 현실을 구별하고, 각각의 현실에 적절하게 들고 날 수 있는 능력을 성숙이라 정의한다. 두 가지 현실에 대한 이해 위에 밀착감과 차별성 그리고 거리감과 유사성의 양극을 모두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이다.”라고 말했다. 리어가 자신의 일상 현실을 파악하고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일종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다. 리어는 자신에게 아첨하고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척 했던 거너럴의 위선을 깨닫고, 나아가 자신이 코델리아에게 행한 잘못을 깨닫는다.

오, 지극히 작은 허물이며,
어찌 그리 흉악하게 코델리아에게 나타났더냐?
그 조그만 허물은 고문하는 기구같이 나의 자연의 본성을,
그 정당한 위치에서 비틀어 내고, 내 마음에서 모든 자애의 심정을 뽑아 낸 후에,
가혹한 마음만을 더 늘게 하였구나. 오 리어, 리어, 리어!
어리석은 마음을 불러들이고,

너의 소중한 판단력을 쫓아낸 이 문을 때려 부숴라.

O most small fault,
How ugly didst thou in Cordelia show!
Which, like an engine, wrenched my frame of nature
From the fixed place, drew from my heart all love,
And added to the gall. O Lear, Lear, Lear!
Beat at this gate that let thy folly in
And thy dear judgement out. (1.4.221-27)

리어에게는 온갖 아침을 동원해 거리낌 없이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던 코델리아가 애정이 없는 딸로 보였겠지만, 그녀야말로 리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딸이다. 리어는 여전히 리건이 거너럴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기대와 달리 리건은 거너럴보다 더 잔인한 인물이다. 리어는 사악한 딸들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다. 깨달음의 순간 그의 정신은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딸들의 배은망덕이 초래한 리어의 정신이상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리어는 미칠 것 같다고 외치면서 거친 폭풍이 몰아치는 광야로 떠난다. 폭풍 속에서 리어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Kim[10]은 이 폭풍우가 사악한 딸들의 “잔인한 폭력성과 리어의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반영하고, 또한 리어가 초래한 “가족과 자연의 질서 교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리어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함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동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바보광대로 하여금 비바람을 피해 먼저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리 오너라. 이 애야! 어떻게 지내니? 이 애야! 추우냐?
나도 춥다. 이 애야, 그 짚으로 만든 자리는 어디 있느냐?
흉악한 것도 소중하게 되니 사람의 곤궁은 신기한 기술을
가졌구나.
네가 말한 그 조그만 집으로 가자. 불쌍한 광대 바보놈아,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너를 불쌍하게 여기는 한 구석이
있구나.

Come on, my boy. How dost, my boy? Art cold?
I am cold myself. - Where is this straw, my fellow?
The art of our necessities is strange,
And can make vile things precious. Come, your hovel. -
Poor fool and knave, I have one part in my heart
That's sorry yet for thee. (3.2.67-71).

여기서 리어는 자신이 헐벗고 고통스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가엽고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준다. 다른 이에게 손을 뻗어 동정심을 보여주는 리어왕은 이제 치유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Jennings[7]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경험의 근저를 형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극적 과정이라고 말한다. 일상현실과 극적현실을 이해하는데 성숙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감정이입 능력과 양심이 발달하여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사건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낳게 된다고 하였다. 리어도 자신의 현실상황을 통해 성숙하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바보광대에게 이입시켜 불쌍한 마음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현실에 처한 힘든 고통의 일들을 극복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바보광대는 계속해서 리어에게 고통과 비참한 상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충고한다. 황야의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 바보광대에게 먼저 오두막에 들어가라고 했던 리어는 이제 예전의 리어가 아니다.

이 인정 없는 폭풍우를 맞으면서도, 의지할 곳 없이 견뎌야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헐벗은 구차한 사람들아,
너희가 어디 있는지 간에, 너희는 머리 둘 집도 없고,
옆구리에는 갈빗대가 앙상하게 나오고,
구멍이 나고 창이 난 누더기를 돌렸는데, 어떻게 이런 날
씨를 견디려는고?
나는 여태껏 이런 일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호화로운 자들이여, 좋은 약이니 이런 것을 경험해 보아라.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이 비바람을 맞아 보곤 너희의 남은 걸 그들에게 노나 주어
천도의 공평함을 보여라.

Poor naked wretches, wheresoe'er you are
That bide the pelting of this pitiless storm,
How shall your houseless heads and unfed sides,
Your looped and windowed raggedness defend you
From seasons such as these? O I have ta'en
Too little care of this. Take physic, pomp,
Expose thyself to feel what wretches feel,
That thou mayst shake the superflux to them
And show the heavens more just. (3.4.28-36)

이 부분은 극이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리어의 동정과 연민이 고통 받는 모든 인간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깨닫게 된 것이다. 리어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또한 바보광대의 도움을 통해 현명해졌다. 하지만 리어가 현명해지는 순간 바보광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제일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굽어보던 리어는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도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코델리아와의 재회에서 “내 잘못을 참아야 돼. 제발 잊어버려 다오. 그리고 용서해 다오. 나는 늙고 어리석으니까. You must bear with me. Pray you now, forget and forgive. I am old and foolish.”(4.7.81-82)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빈다. 결국 리어는 바보광대를 통하여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현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통하여 감정의 순화를 경험하여 치유의 과정을 겪고 안정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셰익스피어의 많은 희곡에 광대들이 등장한다. 광대(Fool)라는 말이 그대로 의미하듯이 그의 작품에는 우둔한 광대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익살과 지혜를 가지고 즐거움을 주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은 신분이 엄격한 제도화된 사회에서 높은 신분에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익살꾼이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비극인 『리어왕』에 등장하는 바보광대는 다른 셰익스피어에 등장하는 광대와는 조금 다르게 이름이 없으며, 현명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논의해 보았다. 광대는 겉으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비판의식을 가지고 현실에 대해 직시하며 왕의 무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여 관객들이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명함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광대가 왕에게는 독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말들로 인해 결국 치유의 과정을 겪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리어왕』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게 된 최초의 계기는 결국 리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리어왕은 바보광대 덕분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진실을 직면하게 된다. 또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두 딸들의 위선을 알게 된다. 사실 바보광대는 리어에게 슬픔을 상기시켜주고 고통을 극대화하여 그를 미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광기가 깊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리어의 반성은 더욱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것이 되어간다[11].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치유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일종의 성숙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까지도 느끼게 된다. Lee[12]는 무엇보다도 리어가 분노하여 올바르게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극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객관성과 일관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광대라고 하였고 이러한 면에서 광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광대는 리어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현명해지는 순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바보 광대를 통하여 리어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감정도 순화되는 등 치유를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바보광대는 리어왕의 현명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리어왕의 치유자인 것이다.

References

- [1] Yeongyu Kim. *King Lear: The Stage of Fools*.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2005.
- [2] Young Choi. *Shakespeare's Fools: Transformation in Popular Tradition and Its Social Function*. The Shakespeare Association of Korea, Vol.34 No.-, p.309-334, 1998.
- [3] Buil Jeong. *A Study of 'Wise Fools' in King Lear and Twelfth Night*. Ma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 [4] Minhye Yu. A Study of Fools in Shakespeare's Comedies: the Case of Falstaff. *Shakespeare Review*, Vol.47 No.1 p.67-89, 2011.
- [5] Inho Gwak. A Study on Main Characters of King Lear: Focused on Structure and Action of the Play. Master D.

- disserataion,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Kyonggi University, 2011.
- [6] Jeongmi Kim. *The Functions of the Fools in Shakespeare's Problem Plays*.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2007.
- [7] Sue Jennings. *Introduction to Dramatherapy: Theatre and Healing*. Seoul: Ulyuck Publishing House, 2003.
- [8] Hyowon Lee. *Walk together with Drama Therapy*. Seoul: Ulyuck Publishing House, 2008.
- [9] Kenneth Muir, Juliet McLauchlan, Nicolas Brooke, John Russel Brown. *A Study of the four great tragedies by Shakespeare*. Seoul: Jongro Publication, 1990.
- [10] Jonghwan Kim. *Shakespeare and Modern Critics*. Daegu: Keimyung University Publication, 2009.
- [11] Sehyun Go. *A Guide to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Gyunggi: Changbi, 2011.
- [12] Miae Lee. *A Study of the Characters in King Lear*.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02.

류 다 영(Da-Young Ryu)

[정회원]



- 199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200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교육학석사)
- 2013년 9월 ~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영문학 박사과정 중)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영미소설, 영미드라마, 영어교육